

# 전북발전 정책과제 찾아 성장견인

### 도·지역발전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주요 현안·과제 공유, 정책방향 등 논의

전북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정책과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확보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군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일재 행정부지사, 지역발전위원회 송병선 단장, 전북도 생활권협의회 위원, 지역발전 전문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주요 현안 및 지역생활권 과제를 공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10대 핵심프로젝트 및 생활권 선도사업 등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 '금융타운 등 전북혁신도시 지역 성장거점 구축', '2023 세계 짬버리 새만금 유치' 등 10대 핵심프로젝트 정책과제를 공유했다.

이어서, '웃산업활성화 방안', '전군 도로 주변 활성화 사업', '가점 광역소득시설 설치운영' 등의 사업 추진 상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2018년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고령·영세농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 등 4개 사업이 올해 지역생활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이 갖는 지역격차 심화 문제, 지방소멸위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중소기업·낙후지역발전을 통한 균등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낙후지역 지원 위한 재정지원, 혁신도시 지

역성장 저점화 등 지역균형발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원회 송병선 단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해 지역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외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꽃을 든 당신 아름답다

### 전주 화훼인연합회, 송하진 지사 방문 고충 호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안주고 안받는' 사회분위기로 매출이 급감하자 전주 화훼인연합회 회원이 송하진 지사를 방문해 고충을 호소했다.

최근 전주 화훼인연합회 임원 7명은 송하진 지사를 방문해 현재 처해 있는 꽃가게 지영업자의 고충을 호소하고 전북도가 꽃 소비 촉진 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면담 건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꽃 소비촉진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실무진에 지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 축하로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꽃(난)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승진 축하로 배송돼 온 꽃(난)에 대해서는 마음놓고 받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청, 시·군, 유관기관에 '권익위 유권해석 내용과 1table 1flower' 운동 동참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한편, 꽃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도, 도내 6개 대학과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협약 체결

전북도와 도내 6개 대학은 3일 '대학 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하진 지사, 이남호 전북대 총장, 나이균 군산대 총장, 김도중 원광대 총장, 이호인 전주대 총장, 김승권 우석대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지도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대학은 행정·재정 사항을 상호 협력하게 되며, 도에서는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관광·농생명 등 도정 핵심시책에 대한 정규과목을 개설해 현장방문, 워크숍 등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창의학교는 합동개강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6월과 7월에는 최종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진행한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와 도내 6개 대학은 3일 대학생에게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 핵심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학 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협약'을 체결했다.

## 도립여중고 입학식 개최 60대 이상이 주류

성인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도립 여성중고등학교의 제2회 입학식이 3일 학교 교정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학식에서 신입생 70명(중30, 고40)이 설립 속에 배움의 기회를 다시 찾게 됐으며, 신입생들은 지난 2월 신입생 선발시험을 거치고 나서야 당당한 도립여중고생이라는 학생 이름표를 달게 됐다.

올해 신입생들 중 최연소 고등학생 이은경(28세)부터, 최고령자 고등학교 노보덕(81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들이 배움을 찾아 전북도립여중고에 모여들었다.

특히, 2017학년도 신입생들은 6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편입생 2명도 입학해 배움에 목말라 있던 학생들에게 전북도립여중고는 행복한 학교생활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했다.

/인재용 기자

## 도, 학생 인플루엔자 발생 주의 당부

신학기를 맞아 전북도는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평상시 가정과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30초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아동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전과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적절한 치료 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 학교(학원 포함)에 등교해 줄 것을 가정·학교 및 학생에게 거듭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전북 농·식품 일본 시장 개척 박차

### 내일부터 '일본 동경 식품박람회' 전북 홍보관 운영·통합한국관 참가

전북도가 도내 농·식품의 일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일본컨벤션센터(마쿠하리메세)에서 열리는 '일본 동경 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17)'에 전북 홍보관을 운영한다.

전북 홍보관에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당조고추 등을 생산 수출하는 (주)로즈피아와 닛토키아제(임실 콩마을), 생들기름(전주 한국오가니), 조

미김(군산 바다향) 등을 생산하는 도내 4업체(15품목)가 참가한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주관하는 통합한국관에 삼계탕(익산 허립)과, 유자차(전주 고려자연식품), 만두(김제 푸드웨어), 즉석발열식품(전주 착한음식) 등을 생산하는 도내 4업체(16품목)가 참가해 총 8업체(31품목)가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한다.

일본 동경식품박람회는 2016년에 78

개국 3,197업체가 참가하고 76,532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농·식품 분야 일본 최대의 국제식품박람회이다.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저 영향이 2016년 엔화 환율의 상당 부분 회복으로 일본 수출이 반등세로 돌아선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 참가는 일본 바이어는 물론 현지 소비자 직접 만나 우리 농·식품을 홍보하할 좋은 기회이다.

이에 업체들은 박람회에 참가한 세

계 유수의 업체는 물론 내방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해 도내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일본 시장 개척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계기로 그간 구축된 일본 바이어 네트워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일본 지역의 신규 전문 바이어 발굴과 일본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효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일본 동경식품박람회 참가는 기존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의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요자 중심의 일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선관위, '청소년 리더' 연수 실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등 미래의 리더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리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청소년 리더' 연수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79회에 걸쳐 진행되며,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또는 민주시민교육 강사가 초·중·고등학교를 순회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다.

연수 신청기간은 6일부터 선착순이며, 연수를 희망하는 각급 학교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도선관위 홍보과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b.nec.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선관위 홍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